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은경

2001년 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은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초록>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이 은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고명규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일반배경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표집대상을 제주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57명으로 하였으며 오승연(1993)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아버지의 양육태도 질문지'와 이미경(1995)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청소년용 충동성 검사지를 참고로 '아동용 충동성 검사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 및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보면 애정-자율의 태도에서 대졸 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적 행동과 개성을 강조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음

* 본 논문은 2002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통제태도와 성취압력적인 태도에서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많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에 대해 성취 압력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거부-냉담태도와 통제태도, 성취압력적인 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어 아버지는 딸에 비해 아들에 대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형제간 수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지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보면, 행동적 충동성에서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첫째인 아동이 막내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각 자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인식하여 특히 중간 자녀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은 아동의 충동성 중 행동적 충동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통제태도, 성취압력적인 태도, 모순불일치 태도와 행동적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목표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지나친 사랑과 과잉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아동은 자율적이며 질서 있고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성숙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를 무조건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기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경청하면서도 성숙된 행동을 장려하며 도와주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	6
2. 충동성의 특성	15
3. 관련 선행 연구	21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측정도구	30
3. 자료처리	33
IV. 연구결과 및 해석	34
V. 요약, 결론 및 제언	46
1. 요약	46
2. 결론	50
3. 제언	51
참고문헌	53
Abstract	62
부록	66

표 차례

<표 II-1> 구성형식에 따른 양육태도 분류	6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24
<표 III-2> 아버지의 양육태도 측정요인에 대한 관련문항번호	25
<표 III-3> 충동성 척도의 측정요인에 대한 관련문항번호	27
<표 IV-1>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28
<표 IV-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29
<표 IV-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30
<표 IV-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31
<표 IV-5>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32
<표 IV-6>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33
<표 IV-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35
<표 IV-8>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35
<표 IV-9>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충동성	36
<표 IV-10>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의 관계	37

그림 차례

[그림 II-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7
[그림 II-2]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	8

부록 차례

<부록 1> 아버지의 양육태도 검사지	66
<부록 2> 아동용 충동성 검사지	7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이미숙·고성혜, 2000)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가족문제로서 가족불화, 대화부재 및 단절, 과잉교육열, 과잉기대를 들고 있고 이외에도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강요와 힘에 의한 자녀에 대한 통제, 물질 중심의 양육태도, 자녀의 신체, 심리 발달에 대한 무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배타적 경쟁 논리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 공동체 의식의 결여, 가정교육의 방향 상실 등으로 인해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 없어 하고, 자녀의 개성을 무시한 채, 학업에 대한 기대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들은 급변하는 물질 및 정보와 부모들의 몰이해, 과잉기대, 대리 성취압력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이미숙·고성혜, 2000), 학교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하여 학습이나 주의 지속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충동성의 문제가 부적응, 비행 등의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어(오승연,1993 ; 이미경, 1995)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아동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이해를 절실히 요청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아동 이해 및 양육태도 문제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는 인격 형성에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자녀교육 방식 등이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해오고 있다.

즉, Levy(1943)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극도의 온정과 과잉보호 즉 간섭하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구속하는 경우, 아동은 수동적이고 수줍어하며 지나치게 근심, 순응하고 사회적 관계나 친구사이에서 위축되어 왔다고 하였고, Kagan(1958)은 부모가 화를 잘 내는 경우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엄격한 허용의 극단성을 지니고, 적개심, 거부, 권위적 주장, 잦은 신체적 처벌, 불일치성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자기조절이 낮아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Sears(1965)또한 부모의 양육방법, 양육태도, 양육조건들이 아동 인성발달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오승연,1993, 재인용)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적 및 인지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그릇된 태도와 충동적 성격의 영향아래 성장한 아동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남녀 역할 평등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양육 및 가사에 아버지 참여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참여나 개입의 효과가 연구되어 왔다(Radin & Sagi, 1982; Pruett,1983; Russell, 1987; 최경순, 1990;).

Lamb(1975)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최소이고 간접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 및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더욱 적극적이고 복합적이며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 연구된 바((Lamb, 1981 : Parke, 1981; Parke & Tinsley, 1987)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 할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정순,1992,재인용). 이렇게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교육에의 참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창출하는 존재로서 어머니와 병행하여 아버지의 존재가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특성 및 양육행동 유형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당히 다른 유형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cDonald & Parke, 1984).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가 양육실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의 인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 및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최정순(1992)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아동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기여를 강조한 연구가 100편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작 사용된 양육에 관한 척도는 대개 부모용이거나 어머니용 양육태도이며,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만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고 아동들의 충동성으로 인한 부적응, 비행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충동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아동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모색하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일반배경(학력, 나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버지의 일반배경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충동성은 일상의 행동 참여관찰과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의존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양육태도와 아버지 역할 및 충동성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충동성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역할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Fishbein(1963)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종승(1982)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를 정의함에 있어 질적인 양육참여 측면인 ‘양육행동’과 양적인 참여측면인 ‘참여도’를 구분하면서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통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최정순, 1992 ; 김은미,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양육태도를 ‘부모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경향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양육태도는 Freud(1952)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부모-자녀 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연구한 여러 학자(Becker, 1964 ; Schaefer, 1975 ;

Dilelmen,1972: Rohner, 1980 ; 남상인, 1983)에 의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꾸준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어 많은 연구를 해왔다(오기선, 1965 ; 김재은, 1974 ; 정원식, 1974 ; 이원영, 1982).

이에 관하여 이상로(1979)가 양육태도를 형식상 차원론적 구성과 형식론적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힘에 따라 그 결과들을 분석하여 차원론적 구성과 형식론적 구성으로 분류해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구성형식에 따른 양육태도 분류

구분	연구자	하위변인	특징
차원론적 구성	Symonds(1949)	수용-거부, 지배-복종	2차원분류
	Scheafer(1959)	애정-적대, 자율-통제	2차원분류 종단연구에 기초
	Roe와 Siegrlman(1963)	애정-거부, 방임-요구, 관심-무관심	3차원 분류
	Becker(1964)	제약-허용, 온정-적대 지나친 관심- 침착한 방관	3차원 분류
	김재은(1974)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	3차원분류 한국 가족의 심리 반영
	정원식(1975)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4차원분류, 가정환경 진단
	한종혜(1980)	애정·수용 - 적대·거부, 민주·자율 - 권위·통제	2차원분류, Scheafer의 분류참고
	오성십과 이종승(1982)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애정-거부, 자율-통제	4차원분류
	이숙(1988)	온정, 거부-권위주의적 통제	2차원분류, 한국 적 특성 반영, 어머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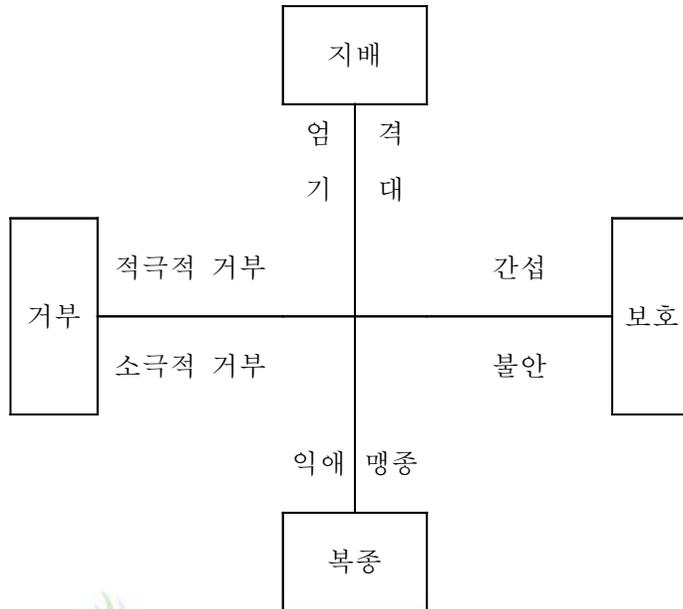
유형론적 구성	Baldwin(1955)	민주적, 전체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의 분위기를 유형화
	오기선(1965)	거부적, 지배적, 보호적, 복종적, 모순불일치적 태도	Symonds이론에 기초 부모-자녀 관계 진단에 초점
	이원영(1983)	정서적-자율적,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Scheafer에 기초
	김성태(1984)	온정적· 제약적, 적대적· 권위적 적대적· 무시적	한국적 특성반영, 부모유형화

양육태도가 차원론적 구성과 유형론적 구성으로 대별됨에 따라 부모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49)의 이론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연구경향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호 반대되는 개념을 축으로 해서 차원론적으로 분류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그림 II-1]과 같이 양육태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개의 요인 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직교좌표로서 분류하고 있다. 거부적 태도에 적극적 거부형과 소극적 거부형, 보호적인 태도에 간섭형과 불안형, 지배적인 태도에 엄격형과 기대형, 복종적인 태도에 익애형과 맹종형으로 세분하고 다시 차원을 달리하여 모순형과 불일치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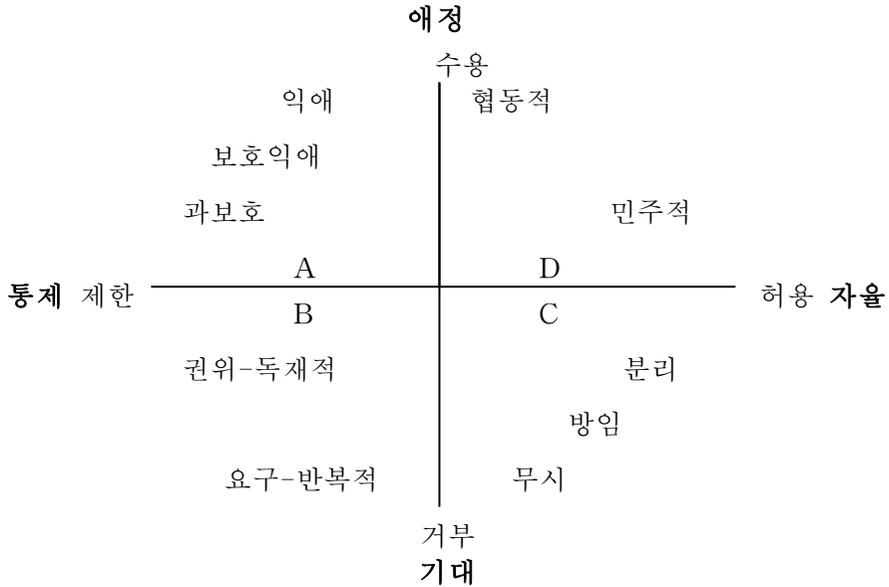
이러한 Symonds(1949)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임상사례에 많이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림 II -1] 양육태도 모형(Symonds, 1949)

한편,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Symonds(1949)와는 다른 이론 모형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생아기 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종단적으로 함께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원형모형(圓形模型)을 제시하였다

Schaefer(1959)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원형 모형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요인과 서로 대립되는 요인들은 고려하여 각 변인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Schaefer, 1959)



위의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애정-자율 사이의 양육 형태와 적대-통제 사이의 양육형태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권위)형으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애정-통제 사이의 양육 형태와 적대-자율 사이의 양육형태는 각각 익애형과 방임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신 건강에 좋은 부모의 양육형태는 D영역이고, A,B,C영역은 우울증과 기타 정신 장애를 가져온다.(오성심과 이종승, 1982, 재인용)

Roe와 Siegrlman(1963)은 자녀의 양육태도에 관한 아동의 보고서를 요인 분석하여 애정 대 거부, 방임 대 요구, 관심 대 무관심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Becker(1964)는 부모의 행동을 최소한 3개의 일반적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Schaefer(1959)의 자율 대 통제 차원을 제약 대 허용, 지나친 관심 대 침착한 방관, 온정 대 적대의 3개 차원으로 분류했다.

또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김재은(1974)은 한국 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의 3차원으로 추출하였고, 정원식(1975)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중혜(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오성심,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숙(1988)은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인은 온정, 거부·권위주의적 통제라고 하였다.

둘째로,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태도를 유형화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Baldwin(1955)은 부모 행동의 평정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가정의 분위기를 민주적, 전체적, 의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하였다.

국내에서 오기선(1965)은 “어버리와 자녀 진단 검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적 태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원영(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서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성태(1984)는 부모의 태도 모형을 온정적-제약적 부모, 적대적·권위적 부모, 적대적·무시적 부모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의 양육태도 모형은 Symonds(1949)나 Schaefer(1959)의 차원적 분류를 기초로 검사대상이나 한국가족문화의 특성에 맞게 첨삭되면서 유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기선(1965)은 한국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5가지 태도를 유형화하였으며, 이원영(1983)은 Schaefer(1959)의 이론을 기초로 우리 나라 실

정에 맞게 4가지 양육태도로 유형화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양육태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여러 유형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애정-자율적인 태도라고 밝히고 있다(Sears, 1961 ; Kagan, 1962 ; Becker, 19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진단함에 있어, 앞서서 살펴본 오기선(1963), 이원영(1983)등의 연구를 기초로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유형화하였으며 연구자의 관점과 일치한 오승연(1993)의 부모용 양육태도 검사지를 대상을 수정하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태도로서 애정-자율적인 태도 한 가지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서 거부-냉담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성취압력적 태도, 모순불일치의 다섯 가지태도를 들 수 있다.

2) 아버지의 역할

전통적인 가정에서 부모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여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며,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 또는 사회 규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산업화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상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취업모 증가에 따른 여성의 자녀양육 및 교육의 책임과 부부 역할의 변화이 요구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절실히 요망되게 되었다. (오화심, 1994)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아버지의 존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이희자, 정영숙, 1979 ; 최경순, 1992 ; 황정혜, 1992).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과 인지, 성취동기 등 제반 영역에서 어머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질적으로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사회적 변동의 영향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하게 될 아버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추세이다(김은미, 1997, 재인용). 이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변화와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존재가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면서 아버지가 양육과 지도에 직접 참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즉, 아버지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양호, 교육, 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idges, Connell, & Belsky, 1988). 김광웅(1978)은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부자관계가 친밀하고 시간 있는 대로 함께 놀며 대화를 나누는 남아는 그렇지 못한 관계에 비하여 지배성, 안정성, 사려성 등이 높았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아동양육에 관련된 가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의 작업부담을 덜어주며 가족 역동성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은 어머니 보다 크다는 점이다. Taub(1974)의 연구와 Tower(1981)의 연구는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일 때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버지가 거부적, 통제적일 때 자녀는 열등의식이 쌓이고 소극적이며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서봉연(1973)은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부정적인 사태였을 경우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상태에서보다는 부정적인 상태, 즉 아버지가 없거나 그릇된 모형이 되고 있을 경우, 부모의 병리적 원인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에 더 많음을 지적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Lamb(1977)과 Parke(1981) 등은 연구를 통하여 이제까지와는 달리 아버지들이 전통적인 도구적 역할 이외에 표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Bigner(1979)는 아기를 안아 주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르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아 주지만 아버지는 아기가 안아 주기를 원할 때나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가끔 안아주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아기의 심리적인 상태에 다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영주(1981)는 아버지는 사회적 안정을 주고 어머니보다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일의 모순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행동 발달에서 아버지는 제제자 역할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는 벌을 주는 사람이며 반사회적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넷째, 자녀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성진(1973)은 한국 아동의 심리적 발달연구의 일환으로 부모의 역할에 따른 자녀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신뢰할 수 있고 포용력이 있으며 따뜻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희자, 정영숙(1979)은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연구 결과에서 아동이 아버지를 동일시할 때 안정감이 크며 안정성 발달에 바람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aw와 Winder(1962)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여아보다 처벌을 덜하고 방치하는 편이며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남아의 아버지는 애정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잘 해주며 남성적인 성역할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연구들은, 현대사회의 변동과 아버지의 질적, 양적 참여

의식 고조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충동성의 특성

충동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1세기 전에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가 관념운동성 활동을 논의하면서 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충동성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이현수, 1992, 재인용).

충동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격심리학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성격특질로 간주되는가 하면,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행동장애의 증후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인지심리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성격특질을 이해함에 있어 동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충동성의 개념을 성격특질로 간주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Harriman(1947)은 충동성을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Buss와 Plomin(1975)는 ‘주저하는 일이 없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기분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자신의 행동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ysenck와 Eysenck(1978)는 충동적인 사람은,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충동성을 대인관계 측면에서 논의한 학자도 있었는데 Barratt(1972)은, 충동적인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성격특질로서의 충동성의 개념도 그 하위구조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Eavas와 Eysenck(1975)는 충동성을 사교성과 함께 외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간주하였으나, 이후 Eysenck(1978)는 이를 수정하여 충동성이 정신병적 경향성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Eysenck와 Eysenck(1977; 1978)는 충동성을 넓은 의미의 충동성으로 명명하고 이를 4개요인-좁은 의미의 충동성, 모험성, 무계획성, 생동감으로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Barratt(1990) Eysenck(1978)의 주장과는 달리, 충동성은 무계획운동성, 운동충동성, 그리고 인지충동성이라는 세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인지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성격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충동적인 사람의 행동특징 중에서 특히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충동성을 인지 및 운동기능의 측면으로 접근한 학자들은 충동적인 사람의 특징을 운동능력을 자제할 수 없고(Maccoby, Dowley, Hagen, & Degerman, 1965),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Kagan, Roseman, Day, Albert, & Phillips, 1964), 그리고 미로학습의 장애자(Porteus, 1959)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Eysenck(1974)는 외향성자의 정보처리특징은 속도를 선호하는 반면에, 내향성자는 정확성을 선호한다는 신중성 가설을 주장하였다. 특히, 충동성자의 인지적 특징을 밝

힌 Barratt과 Patton(1983)등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인지적 템포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지각-운동과제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또한, Barratt과 Patton(1983)은 충동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빠른 인지속도가 행위계획에 대한 사전 프로그래밍 혹은 반응세트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충동성의 정보처리전략을 연구한 Kagan(1966)은 충동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Dickman과 Meyer(1988)는 이런 주장을 발전시켜 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자신의 인지전략과 일치하는 부정확하지만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행을 잘하고, 충동성 수준이 낮은 피험자는 느리지만 정확한 반응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행을 잘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동성 수준이 중간인 피험자는 빠르게 반응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반응하려는 지배적인 인지전략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인지전략을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는 충동성을 사고 및 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주의결핍장애로 간주하고 아동의 과잉행동, 학습장애나 난독증, 그리고 정신병질과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 (Barratt, 1985; 1990; Barratt & Patton, 1983).

Paulsen과 Johnson(1980)또한 충동성을 정신병적 경향성인 행동장애 증후인 임상적 증후군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충동성을 과잉활동증후군, 학습능력부족, 그리고 운동기능향진과 같은 이상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Buss(1966)는 ‘충동성(Impulsivity)’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질이고, Cleckley(1976)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비행을 반복하게 해주는 성격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탈억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취약한 환경에 처했을 때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데 충동적인

성격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의 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충동성은 이후의 부적응 행동 및 비행에 관련되고(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Satterfield, 1987), Moffitt(1993)은 충동 통제의 결함은 학업성취를 방해하여 인습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으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적응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충동성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성격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충동성은 문제시되어 지고 있다(이미경, 1995,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보면 충동성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 즉,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이상심리학의 모든 영역에서 충동성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충동성을, ‘사고나 행동의 통제가 어려워 주의력 집중이나 대인관계에 부적절한 성향’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충동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관련요인을 밝히고 척도개발을 시도한 중다차원 모델과 이와 관련한 성격적, 행동적, 인지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Barratt(1985)은 충동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관념적-임상적 관점에서 충동성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으로 세분하여 Barratt Impulsive Scale(BIS)과 같은 위해 새로운 척도를 사용했다. 여기서 주장하는 충동성의 세 가지 측면은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그리고 인지충동성이다. 이것이 Barratt의 충동성에 대

한 중다차원모델이다(이현수, 1993).

Gerbing 등(1987)도 충동성이 단일차원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차원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충동성의 특징을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373개의 문항을 모아 하나의 측정 도구를 제작하여 그것을 여러 집단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15개의 의미있는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계획회피, 결심, 그리고 정력요인은 Barratt(1985)의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그리고 운동충동성 요인과 각각 매우 유사하다.

Eysenck와 Eysenck (1978)는 충동성 측정문항으로 된 검사를 여러 이질집단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넓은 의미의 충동성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도 Barratt(1985)의 하위충동성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즉 Eysenck와 Eysenck(1978)의 좁은 의미의 충동성은 생동감, 그리고 무계획성은 Barratt의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그리고 무계획충동성과 각각 유사하다. 또한 Salkind와 Wright(1977)는 사고적 충동성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곧 Barratt(1985)의 사고충동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충동성 구인의 다차원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White 등(1994)은 기존의 충동성 척도를 그 접근 방식에 따라 인지적, 행동적, 성격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한 다양한 척도를 복합적으로 실시한 후 측정치간의 관련성을 통하여 충동성의 주요 차원을 분류하였다.

먼저, 충동성에 관하여 인지적으로 접근했던 연구에서는 충동성의 표현이 시간의 이해와 지각의 개인차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생각 없이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은 인지적 템포의 차이 때문이고(Barratt & Patton,1983), 그러한 단축된 인지양식은 처벌 결과를 간과하고 신속하게 부상이 이루어지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보았으므로 (Wilson & Herrnstein,1985)인지적 수준에서 충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 방법에는 시간 지각, 단어 연상 과제(stroop test), 추적 과제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 충동성에 대한 행동적 접근법에서는 충동성이란 ‘행동적인 탈억제의 형태’로서 행동억제 체계와 활성화 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다양한 카드 게임, 만족 지연 과제 등으로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적 접근법에서는 성격 특질이 한 유전적인 개인차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진 것으로서 개인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지속적인 방식(Buss & Plomin,1975)이라 보고, 생각없이 행동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을 행동화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충동성의 다차원적인 속성과 비행간의 상관연구들은 행동적 충동성에 비하여 인지적 충동성이 반사회적 행동과 덜 관련된다고 보고했다. 예컨대 Luengo 등(1994), Royse와 Wiehe(1988), White 등(1994)의 연구에서 인지적 충동성은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과 약한 상관을 보였고, 비행 집단과 무비행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Barratt(1985,1987,1990)는 반사회적 집단과 정상 집단을 구분해 주는 것은 인지적 충동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지적 충동성과 비행간의 상관은 행동적 충동성과 비행과의 상관과 달리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미경(1993)이 Dickman(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 비행과 역기능적 충동성과 기능적 충동성간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이상의 충동성의 관련 요인 및 차원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인지적, 행동적, 성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행동적 충동성과 인지적 충동성으로 나누어 아동의 충동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행동적 충동성을 ‘행

동의 통제부족과 관련된 충동성' 즉, 탈억제 및 통제불능, 무계획적 충동성(White 등, 1994)으로, 인지적 충동성을 '빠르고 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경향 즉, 무질서함, 결정전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속성, 심리적 장애나 적응상의 어려움'(Dickman, 1988)으로 정의한 개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관련 선행 연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인성과의 관계,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중요성과 인성과의 관계, 셋째, 충동성 및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을 보면 박경숙(1973)은 어린이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형태나 구성이 아니고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교육 방법 및 태도라고 하였다.

윤희상(1974)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성격특성과 관계가 깊고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성격특성에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광규(1975)는 가족 내부의 기제로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회적 안정을 주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게 되어 서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행하게 됨으로써 가족이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경희(1975)는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

치며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높을 수록 지배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정규(1976)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모두 유아의 인성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암아가 영아보다 활동성, 충동성, 안정성이 높다고 하였다.

정명교(1983)는 자녀가 부와 모에 대해 소극적 거부 또는 적극적 거부적으로 지각할 수록 MMPI 전체척도의 성격 경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진숙(1989)은 아동의 성격에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부모의 거부적 태도이며, 안정성엔 기대형과 모순형이 사회성엔 불안형과 익애형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함혜자(1992)는 양육태도 거부형은 강인성 성격에, 복종형은 외-내향성 성격에, 지배형은 정서성 성격에, 복종형은 허위성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수준이 높으면 외-내향성 성격은 작아지고 정서성 성격은 큼을, 복종형은 수준이 높으면 외-내향성 성격과 허위성 성격은 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Symonds(193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지배적, 거부적, 복종적, 과보호적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부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녀의 행동적 반응은 명백하다고 보았다. 즉, 지배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의존적이 되며, 복종적과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성격은 자기 중심적이고, 거부적 태도와 복종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지배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반항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Baldwin(1949)에 의하면 민주적 양육방식으로 아동의 행동을 주도하는 부모의 아동이 또래들 간의 놀이에서 높은 사교성을 나타내고, 통제적인 태도로 아동행동을 주도하는 부모의 아동에 비해 타인에게 친절하고 쉽게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민주적이면서 수용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행동을 주도하는 부모의 아동은 엄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부모의 아동에 비해 협동성과 사회성이 높고(한종혜, 1980)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신뢰감과 애정이 있다(Jersild, 1975).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권위적일 때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때 아동은 더 안정되고 사회적 능력이 높다(김정아, 1990 ; Mussen, 1963). 반면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의 아동은 복종적이고 공격성이 부족하고 잘 두려워할 뿐 아니라 목표를 추구해 가는 데 끈기가 없다(박범실, 1987).

최정순(1992)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부모가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즉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허용적으로 대하면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호혜적인 상호작용행동을 적게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부모의 적합하지 못한 양육행동이나 통제적인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부족하게 하며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므로(이혜영, 1986 ; 정명교, 1987 ; Taub, 1974 ; Turner & Harris, 1984)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일관성 있는 자율지향적 행동이 요구된다. 부모의 자율지향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고(이원영, 1993), 형제나 또래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케 하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심숙희, 1987)는 보고들이 있다.

한편, 양육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애정적이면서도 적절한 통제를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은 자제력이 있고 탐색력이 높다(Baumrind & Black, 1967).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 지향적이면 아동은 활동성·독립성, 지적발달(이원영, 1983)수준이 높아지며, 사회적 능력(김정아, 1990), 사회성(이희자·정영숙, 1979)이 발달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성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에

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 및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했을 때, 자녀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아버지의 존재 유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즉,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며,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 또는 사회 규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이인수, 1998)

그러다가 학자들은 점차 아버지의 역할 수행 및 참여가 자녀의 성격,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강혜선, 1988).

오늘날 아버지에 대한 더욱 급진적인 관점은 어머니의 단순한 보조자로서는 자녀의 놀이 친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허선자, 1992). 즉,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양이 적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양육에 참여도가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독립성과 사회성, 활동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문미옥, 1983).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며, 감정이입능력이 발달하고, 성 정형화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게 된다(Lamb, 1986). 또한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 참여는 자녀의 도덕성과도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즉,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가 보다 내면화된 이타심과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정현희, 최경순, 1992)

Becker(1964)는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임했을 때 자녀는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건전한 성인이 되어 성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Bigner(1979)는 아버지가 자녀 출생 직후부터 영아와 의미 있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들도 영아와 의미 있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들도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아버지가 어린 유아의 인지발달을 강화하고 유아의 성역할 발달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McDonald와 Parke(1984)는 신체놀이를 많이 해 주는 아버지를 가진 유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아버지가 긍정적인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때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안정되며, 특히 부모의 사이가 원만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가정의 아동들은 사회성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Kelly와 Worell(1977)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버지-자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경순(1993)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행동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유능성, 지도성이 높고, 특히,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의 유능성, 지도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영순(1988)에 의하면 아버지의 애정·자율적 태도가 활동성·안정성·협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과민성·비협조성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장혜선(1987)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취동기를 비교하였는데, 특히 아버지의 성취·합리·자율지향적 태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가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다.

공인숙(1989)은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면서 통제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도 높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을 비교한 김의순(1984)의 보고에서는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가 아동의 지배성·충동성·사회성과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지배적 태도는 아동의 안정성·사려성·사회성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동과의 직접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가사활동참여는 어머니의 작업부담을 덜어 주어 가족역동성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제영역 발달에 효과적이다(Barnett & Brauch, 1987 ; Hoffman, 1989 ; Leary & Vermeulen, 1987).

최정순(1993)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도가 증가하는 데, 이는 아버지의 신뢰성·포용력·온정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의 애정이나 관심이 지나치게 결여된다면 아동의 지적행동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에 관해 국내외 연구의 경향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아버지가 아동양육과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참여하는 지, 아동발달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참여도가 중요함을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 될 것이다.

셋째, 충동성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Coners(1980)는 유아의 충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유아가 처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양육자의 양육유형)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았다.

Hess와 Shipman(1965)는 문화적으로 유리한 아동보다 문화적으로 불

리한 아동들이 행동면에서 더 충동적이고, 문화적으로 불리한 아동이 유리한 아동보다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언어적 지배를 덜 받고 더 자주 체벌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상적인 아동과 주의가 산만한 아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 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 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과잉 행동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침착하지 못하고 산만해하며 부주의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Werky, Weiss & Donglas;1964).

과행동적 아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결핍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의 행동 즉, 아동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내부적으로 통제, 조절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감시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의 행동 때문에 길러진다고 Campbell(1973)은 지적하고 있다. 충동적인 아이는 인지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통제적인 부모를 가진 반면, 사려적인 아동은 자율적인 부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들은 성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인 도움과 더 많은 제시가 주어진다고 한다. 반면 사려적인 아동의 엄마는 다른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보다 더 고무적이고 덜 지배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Campbell(1973)은 과행동적, 충동적, 사려적 세 집단의 아동들의 엄마를 비교하였다.

사려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충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인 물리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과행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두 집단의 어머니들 보다 격려하는 말을 자주 주었으며, 충동을 억제하도록 더 많은 지시를 주었다. 이 결과는 Campbell(1973)이 세운 가정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교사나 실험자 또

는 부모가 사려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아동들의 사려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odeling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Yando,1970)

Patterson(1992)는 자녀에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며 책임감이 없다. 인지적 발달이 늦고 학업 성적도 떨어지며 사춘기 이후, 불량화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충동성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소재한 D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 31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질문에 완전하게 응답하지 않은 54부를 제외한 총 257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하였다. 기초자료로서 일반배경을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28	49.8
	여	129	50.2
학년	5학년	121	47.1
	6학년	136	52.9
형제 수	2명 이하	166	64.6
	3명 이상	91	35.4
출생 순위	첫째	109	42.4
	둘째 이상	75	29.2
	막내	73	28.4
아버지의 학력	고졸 이하	147	57.2
	대졸 이상	110	42.8
아버지의 연령	30대 이하	37	14.4
	40대 이상	220	85.6
맞벌이 여부	그렇다	123	47.9
	아니다	134	52.1
계		257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검사와 아동용 충동성 검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검사

아버지의 양육태도 측정 질문지는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이 변안(1983)한 것과 오기선(1968)의 어버이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김재은(1974)의 가정 환경 진단 척도를 중심으로 오승연(1993)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를 대상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 Ⅲ-2> 아버지의 양육태도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

측정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a)
애정-자율태도	같이놀아주기, 칭찬,관심,질문에 응하기,경청,도움주기,스스로 하도록 권장,의견존중, 의견들어보고 결정	1, 7, 13, 19, 25, 31, 37, 43, 49, 55	10	0.77
거부-냉담태도	대화거부,나쁜점만 지적,실수 용납못함,안되다는 말 자주 함,만드시 처벌,내버려두기,무관심,친구에 반응에 대해 냉담함	2, 8, 14, 20, 26, 32, 38, 44, 50, 56	10	0.57

통제 태도	행동통제,의견무시,야단치기,규칙절대시,물건사기통제,강요,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함,일일이 가르침,친구관계 간섭	3, 9, 15, 21, 27, 33, 39, 45, 51, 57	10	0.69
익애적 태도	지나친 염려,행동반경 통제,무조건 칭찬,원하는 것 다해주기,마냥 귀여워해 줌, 바라는 대로 해 주기,일일이 챙겨줌,병이 날까봐 걱정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10	0.68
성취압력적 태도	공부하라고 강요, 성적강요,억지로 시킴,행동 하나에 조언,무엇이 되라고 강조, 지시, 늘 공부하라는 소리, 좋은 학교에 가기바람, 공부를 하면 보상해 주심	5, 11, 17, 23, 29, 35, 41, 47, 53, 59	10	0.63
모순불일치태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행동, 꾸중 때로는 침묵, 꾸중하고 난 후 기분 맞추어 주기, 약속 불이행, 잘한 일은 냉담, 못한 일은 꾸중, 형제간 차별, 귀여해 주면서도 대론 심하게 야단침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	0.54

본 연구의 양육태도 검사 요인은 애정-자율태도, 거부-냉담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성취압력적 태도, 모순 불일치태도의 6개 변인으로 하여 각 10문항씩 총 60문항을 사용하였다.

채점 방법은 항상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을 주어 이 항목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아동용 충동성 검사

아동의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Eysenck(1984)와 White등(1994) 및 Dickman(1990)이 개발하고 이미경(1995)이 수정하여 사용한 청소년용 충동성 검사지를 참고로 50문항을 아동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검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기능적 충동성’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삭제한 후 42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구성 내용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충동성 척도의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구성 내용 및 신뢰도

충동성 척도	문항 구성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a)
행동적 충동성	이것저것 고려해 보지 않고 결정 내리기, 충동구매, 충동발안, 꼼꼼하지 못함, 정서적인 격분, 울화, 가출충동	1,4,6,7,8,9,10,11,12,13,14,15,16,17,18,19,20,22,24,25,26,27,29,30,31,32,33,34,35,36,37,38,39,40,41,42	36	0.82
인지적 충동성	조심히 해결하지 못한, 흥분, 문제점 간과, 신중하게 결정하기 못하여 후회하는 일 초래	2,3,5,21,23, 28 (역산처리)	6	0.61
충동성(전체)			42	0.72

이 척도는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예”이면 2점, “아니오”이면 1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항목점수 및 하위변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충동성 및 인지적 충동성, 충동성이 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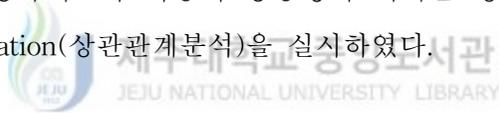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 < .05$,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과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충동성 검사를 통하여 부의 학력, 연령,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의 차이,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형제간 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지각 및 충동성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다. 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 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 <표 IV-2>, <표 IV-3>과 같다.

가설 1.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1>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1>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고졸 이하 (n=147)		대졸 이상 (n=110)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70	0.58	3.03	0.51	2.84	0.57	-4.72**
거부-냉담태도	1.83	0.43	1.77	0.40	1.81	0.42	1.09
통제태도	1.68	0.51	1.68	0.42	1.68	0.47	0.05
익애적 태도	2.02	0.48	2.13	0.47	2.07	0.48	-1.73
성취압력적 태도	2.14	0.48	2.20	0.41	2.16	0.45	-1.05
모순 불일치 태도	2.07	0.43	2.03	0.46	2.06	0.44	0.71

(** p<.01)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애정-자율태도는 학력이 대졸 이상인 아버지(M=3.03)가 고졸 이하인 아버지(M=2.70)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72, p<.001$).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강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여 칭찬, 승인, 격려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부-냉담 태도와 모순 불일치 태도는 학력이 고졸 이하인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아버지보다 높고, 익애적 태도와 성취압력적 태도는 학력이 대졸 이상인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 아버지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통제태도는 학력이 고졸 이하인 아버지와 대졸 이상인 아버지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30대 이하 (n=37)		40대 이상 (n=220)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75	0.54	2.86	0.58	2.84	0.57	-1.03
거부-냉담태도	1.80	0.42	1.81	0.42	1.81	0.42	-0.13
통제태도	1.53	0.38	1.71	0.48	1.68	0.47	-2.13*
익애적 태도	1.99	0.41	2.08	0.49	2.07	0.48	-0.99
성취압력적 태도	1.98	0.40	2.19	0.45	2.16	0.45	-2.63**
모순 불일치 태도	2.04	0.42	2.06	0.44	2.06	0.44	-0.27

(* $p<.05$, ** $p<.01$)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40대 이상인 아버지가 30대 이하 아버지보다 통제태도

와 성취압력적 태도가 더 높다. 즉, 통제태도는 연령이 40대 이상인 아버지(M=1.71)가 30대 이하 아버지(M=1.53)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3, p<.05$). 성취압력적 태도는 연령이 40대 이상인 아버지(M=2.19)가 30대 이하 아버지(M=1.98)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3, p<.01$).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1984), 김옥엽(1981), 위영희(1980)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목표를 주어 복종할 것을 기대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애정-자율태도는 연령이 40대 이상인 아버지가 30대 이하 아버지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부-냉담적, 익애적, 모순 불일치적 태도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그렇다 (n=123)		아니다 (n=134)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82	0.57	2.86	0.57	2.84	0.57	-0.67
거부-냉담태도	1.83	0.41	1.78	0.42	1.81	0.42	0.94
통제태도	1.69	0.46	1.67	0.49	1.68	0.47	0.38
익애적 태도	2.08	0.49	2.06	0.47	2.07	0.48	0.26
성취압력적 태도	2.16	0.46	2.16	0.45	2.16	0.45	-0.02
모순 불일치 태도	2.08	0.44	2.04	0.44	2.06	0.44	0.74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여부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혜정(1994)에서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아버지가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배우

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지지적인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직업유무 자체보다는 배우자의 직업의 종류, 대리양육의 질,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태도의 차이

가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남 (n=128)		여 (n=129)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82	0.55	2.86	0.59	2.84	0.57	-0.61
거부-냉담태도	1.88	0.40	1.73	0.42	1.81	0.42	2.88**
통제태도	1.79	0.45	1.57	0.47	1.68	0.47	3.92**
익애적 태도	2.02	0.47	2.12	0.49	2.07	0.48	-1.62
성취압력적 태도	2.23	0.48	2.09	0.41	2.16	0.45	2.43*
모순 불일치 태도	2.09	0.44	2.02	0.43	2.06	0.44	1.32

(* p<.05, ** p<.01)

<표 IV-4>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냉담태도와 통제태도, 성취압력적 태도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남자 아동(M=1.88)이 여자 아동(M=1.73)보다 거부 냉담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p<.01$)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제태도에 대하여도 남자 아동(M=1.79)이 여자아동(M=1.57)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취압력적 태도에 대하여 남자아동(M=2.23)이 여자아동(M=2.09)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과 양육태도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Campbell(1979)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기질이 순한 딸보다는 기질이 까다로와 반응성이 낮고 성격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아들들에게 덜 애정적이고 통제적이며 목표달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애정-자율적 태도, 익애적 태도는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모순 불일치의 태도는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이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5>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2명 이하 (n=166)		3명 이상 (n=91)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86	0.55	1.79	0.41	2.84	0.57	0.86
거부-냉담태도	1.79	0.41	1.83	0.44	1.81	0.42	-0.66
통제태도	1.66	0.43	1.71	0.54	1.68	0.47	-0.74
익애적 태도	2.06	0.48	2.09	0.48	2.07	0.48	-0.48
성취압력적 태도	2.15	0.45	2.19	0.46	2.16	0.45	-0.82
모순 불일치 태도	2.05	0.43	2.06	0.46	2.06	0.44	-0.12

<표 IV-5>에서 보면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정-자율태도는 형제 수가 2명 이하인 아동이 3명 이상인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부-냉담태도와 통제태도, 익애적 태도, 성취압력적 태도, 모순 불일치 태도는 형제수가 3명 이상인 아동이 2명 이하인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Patterson과 Bijou(1976), 장병립(1980) 등이 자녀수가 자녀교육에의 경험, 접촉의 질 및 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실증연구로서 상관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표 IV-6>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구 분	첫째 (n=109)		둘째 이상 (n=75)		막내 (n=73)		전 체 (n=257)		F
	M	SD	M	SD	M	SD	M	SD	
애정-자율태도	2.91	0.57	2.73	0.59	2.86	0.55	2.84	0.57	2.35
거부-냉담태도	1.81	0.43	1.85	0.45	1.76	0.37	1.81	0.42	0.86
통제태도	1.69	0.48	1.69	0.50	1.66	0.44	1.68	0.47	0.10
익애적 태도	2.00	0.48	2.12	0.51	2.12	0.45	2.07	0.48	1.97
성취압력적 태도	2.13	0.48	2.23	0.47	2.14	0.39	2.16	0.45	1.17
모순 불일치 태도	2.04	0.45	2.11	0.44	2.03	0.43	2.06	0.44	0.72

<표 IV-6>에 의하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자율태도는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막내인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부-냉담태도는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출생순위가 막내인 아동이 첫째인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였으나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제태도는 출생순위가 막내인 아동이 출생순위가 첫째와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였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익애적 태도는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과 막내인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취압력적 태도와 모순 불일치 태도는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출생순위가 첫째와 막내인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희자와 정영숙(1980)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방식,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도, 관심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가설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표 IV-7>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충동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적 충동성과 인지적 충동성 모두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충동성은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1은 기각되었다.

<표 IV-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 분	남 (n=128)		여 (n=129)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행동적 충동성	17.70	6.25	16.42	6.48	17.05	6.38	1.61
인지적 충동성	2.84	1.54	2.68	1.69	2.76	1.62	0.80
전 체	20.54	6.66	19.10	7.22	19.82	6.97	1.66

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표 IV-8> 아동의 형제 수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 분	2명 이하 (n=166)		3명 이상 (n=91)		전 체 (n=257)		t
	M	SD	M	SD	M	SD	
행동적 충동성	16.93	6.38	17.29	6.42	17.05	6.38	-0.43
인지적 충동성	2.89	1.54	2.54	1.73	2.76	1.62	1.60
전 체	19.81	6.88	19.82	7.16	19.82	6.97	-0.01

<표 IV-8> 에 의하면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없었다. 먼저 행동적 충동성은 형제 수가 3명 이상인 아동이 2명 이하인 아동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인지적 충동성은 형제 수가 2명 이하인 아동이 3명 이상인 아동보다 높았으나 형제 수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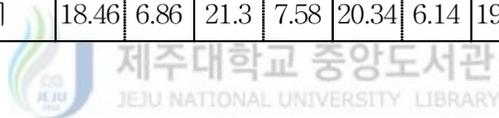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충동성은 형제 수가 2명 이하인 아동과 3명 이상인 아동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2는 기각되었다.

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표 IV-9>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 분	첫째 (n=109)		둘째 이상 (n=75)		막내 (n=73)		전 체 (n=257)		F
	M	SD	M	SD	M	SD	M	SD	
행동적 충동성	15.78	6.28	18.64	6.95	17.33	5.56	17.05	6.38	4.69*
인지적 충동성	2.68	1.66	2.64	1.67	3.01	1.48	2.76	1.62	1.25
전 체	18.46	6.86	21.3	7.58	20.34	6.14	19.82	6.97	4.02*



* p<.05

<표 IV-9>에 의하면 아동의 출생순위가 충동성 하위요인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행동적 충동성은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M=18.64)이 가장 높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M=15.78)이 막내인 아동(M=17.33)보다 행동적 충동성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69, p<.05). 인지적 충동성은 출생순위가 막내인 아동이 출생순위가 첫째와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충동성은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M=21.3)이 가장 높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M=18.46)이 막내인 아동(M=20.34)보다 충동성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2, p<.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행동적

충동성이 가장 높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막내보다 행동적 충동성이 낮았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3은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

가설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IV-10>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10>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의 관계

구 분	행동적 충동성	인지적 충동성	충동성
애정-자율태도	0.023	-0.169**	-0.018
거부-냉담태도	0.289**	0.187**	0.308**
통제태도	0.269**	-0.018	0.242**
익애적 태도	0.177**	-0.109	0.137*
성취압력적 태도	0.304**	-0.066	0.263**
모순 불일치 태도	0.416**	0.071	0.398**

(* p<.05, ** p<.01)

<표 IV-10>에서 보면, 애정-자율태도는 인지적 충동성($r=-.169$,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질서있고 신중함을 지닌 성향을 지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부-냉담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289, p < .01$)과 인지적 충동성($r = .187, p < .01$), 충동성($r = .308,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혹한 체벌, 실수를 용납 못함, 학대, 대화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가 자녀의 인지적 충동성뿐만 아니라 행동의 통제부족을 야기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오승연, 1993)을 의미한다. 또한 이중석(1991)은 부모의 거부를 아동이 인지할 때 비행과 그 외의 장애증후가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은 부모의 거부태도를 불러일으켜 악순환이 된다고 하였다.

통제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269, p < .01$), 충동성($r = .242,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충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 수록 오히려 행동적 충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는 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 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음을 보고한 Werky, Weiss & Donglas(1964)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탈선이나 가출행동을 하는 등의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익애적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177, p < .01$), 충동성($r = .137,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지나친 사랑과 과잉보호 즉, 간섭하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구속하는 경우 아동은 이기적인 성격이 되기 쉽고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가지며 이

러한 충동성으로 인하여 과잉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취압력적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304, p<.01$), 충동성($r=.26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가 성취압력적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아동은 행동적 충동성과 충동성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개성을 무시하고 입시위주의 성적과 유능성만을 강조하는 부모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제가 다분히 성취압력적인 양육태도의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모순 불일치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416, p<.01$), 충동성($r=.39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가 모순 불일치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아동은 행동적 충동성과 충동성이 높았다.

이는 일관되지 못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때론 그것이 긍정적인 상이나, 관심일지라도 격분이나 무계획적인 행동, 반항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녀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부모가 목표나 바람직한 행위를 강조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취했을 때 아동은 행동의 방향과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격분하거나 무계획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독단적이지 않은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과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일반배경(학력, 나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는가?
-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버지의 일반배경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및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충동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아동의 형제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1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257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로는 오승연(1993)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60문항의 ‘아버지의 양육태도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아동의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경(1995)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청소년용 충동성 검사지를 참고로 ‘기능적 충동성’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삭제한 후 4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배경의 하위변인으로는 아버지의 학력, 연령, 배우자의 취업유무를 설정하였고, 아동의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으로는 애정-자율, 거부-통제, 통제, 익애, 성취압력적, 모순불일치적인 태도를 설정하였고, 아동의 충동성 하위변인으로는 행동적 충동성, 인지적 충동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아동과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일반배경(학력, 나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지각차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보면 애정-자율의 태도에서 대졸 이상(M=3.03)이 고졸이하(M=2.7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고 있다.
- ②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통제태도에서는 40대 이상(M=1.71)이 30대 이하(M=1.53)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다. 그리고 성취압력적 태도도 40대 이상(M=2.19)이 30대 이하(M=1.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아동의 일반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지각차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남자 아동(M=1.88)이 여자 아동(M=1.73)보다 거부 냉담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p<.01$)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제태도에 대하여도 남자 아동(M=1.79)이 여자아동(M=1.57)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취압력적 태도에 대하여 남자아동(M=2.23)이 여자아동(M=2.09)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이고 있다.
- ② 아동의 형제간 수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지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일반특성(성별, 형제간 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충동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의 성별 및 형제간 수에 따라 충동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보면, 행동적 충동성에서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M=18.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첫째인 아동(M=15.78)이 막내인 아동(M=17.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고 있다.

넷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① 애정-자율태도는 인지적 충동성($r = -.169,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충동성도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미약하나마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거부-냉담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289, p < .01$)과 인지적 충동성($r = .187, p < .01$), 충동성($r = .308,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통제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269, p < .01$), 충동성($r = .242,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충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④ 익애적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177, p < .01$), 충동성($r = .137,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충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⑤ 성취압력적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304, p < .01$), 충동성($r = .26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충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⑥ 모순 불일치 태도는 행동적 충동성($r = .416, p < .01$), 충동성($r = .398,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충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결론

위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적 행동과 개성을 강조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연령이 많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에 대해 성취 압력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다.

셋째, 맞벌이 자체만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맞벌이 여부보다는 맞벌이에 따른 직업의 종류, 대리양육의 질,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는 딸에 비해 아들에 대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인 거부-냉담, 통제, 성취 압력적인 태도를 더 지각하고 있다.

다섯째,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행동적 충동성이 가장 높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막내보다 행동적 충동성이 낮았다. 따라서, 아버지는 각 자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인식하여 특히 중간 자녀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애정-자율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충동성이 낮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혹한 체벌, 실수를 용납못함, 학대, 대화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 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탈선이나 가출행동을 하는 등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지나친 사랑과 과잉보호 즉, 간섭하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구속하는 경우도 아동을 이기적인 성격이 되게 하고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갖는 충동적인 성격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인지적, 행동적 충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무조건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기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경청하면서도 성숙된 행동을 장려하며 도와주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태도 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충동성간의 관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충동성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충동성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한 아동의 기질, 외향성, 관념운동성 활동, 모험, 무계획성 등과 같은 변인과의 다양한 상관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동성검사 도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도구를 문항의 갯수 및 내용을 재구성하여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성별, 연령, 학년별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최장숙(1993)과 이미경(1995) 등의 선행연구에서 충동성이 부적응 및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남에 따라 부적응아 및 비행아 예방차원에서의 아버지의 영향과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원(1995). 청소년 비행의 현황 분석. 법무부.
- 강혜선(1998).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김창기·노성호·이숙영(2000). “비행청소년의 이해”,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서울협의회.
- 공인숙(1989).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옥자(1987).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93).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1973). 가정환경 요인과 학령 전 아동의 지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1978).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3권.
- 김광웅·박성연 역(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영아(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김은미(1997).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87).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3-74.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제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옥(1985).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1988). 문제행동의 교육과 치료, 서울:배영사.
- 박성혜(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3). 자녀에 대한 부친의 영향, 광제 이의철박사 회갑기념 논총, 서울: 광신문화사.
-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 286-297.
- 심숙희(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기선(1965). 어버이와 자녀관계진단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5.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노트,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오승연(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과 부적응행동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관계해결사고와의 관계,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1). 가족관계학, 서울:수학사, 188-189.
- _____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희상(197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75),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75). 한구가족의 구성분석, 서울:일지사.
- 이길홍·김현수·민병근,(1982). “한국 청소년 학생의 자살 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II, [2] ,35-42.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고성혜(1999). “도시 빈곤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겨울호.
- 이사라(1994).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딸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1989).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_____ (1992), “충동성:특질인가?, 증후인가?”, 「중앙대학교인문과학논문집」, 35,173-202
- _____ (1992). 충동성검사, 서울 : 한국가이던스.
- _____ (1993). “충동성 성격의 정보처리전략”, 「중앙대학교 성격 및 개입 연구」, 2,45-58.
- _____ (1994). “충동성의 유형”, 「중앙대학교 인문학연구」, 21, 93-104.

- 이훈구(1994), 성격심리학, 서울;법무사
- 이희자·정영숙(1979). "아버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2).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정(1993). 가정환경 변인이 국민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연(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순·이명홍(1989). "도시 빈곤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교육출판사.
- _____ (1981).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_____ (198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정현희·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1978). "조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6권4호.
- 조흥식(1994). 사회복지 서비스와 가족. 한국 가족학회 학술대회 '복지 국가와 가족' 자료집.
- 최경순(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최장숙(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 성격특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대 석사학위논문
- 최정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대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

- 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함혜자(1992). 양육태도와 성격,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종규(1968). 행동진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 출판사.
- Baldwin, A.L.(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_____ (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 Holt, Rainhart and Winston, 356-359.
- Baldwin, A. L. J. Kalthorn, and F. H. Breese(1948). Pattern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rs. In M. Zu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pp. 77-122). Hillsdale, NJ: Erlbaum.
- Barratt, E.S.(1972).Anxiety and Impulsiveness: Toward a neuropsychological modal. In c.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1. New York; Academic.
- _____ (1990).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Risk Special Studies Meeting McArtner Foundation Program of Research on Mental Health and Behavior. Pittsbergh, P.A., September, 27-28.
- Becker, W. C.(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ver. New York: Russell Sage. 169-208.
- Bigner,J.J.(1979). Parent-Child Relations,N.Y: MacMillian Publishing

Co., 62.

- Bridges, L.J., Connell, J.P., & Ba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 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92-100.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Wiley and sons.
- Buss, A. H. (1966). Psychopathology. New York : Wiley.
- Campbell, S. B., & Paulauskas, S. (1979). Peer Relation in Hyperactive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233-246.
- Dickman, S & Meyer, D. E. (1988). Impulsivity and speed-accuracy tradeoffs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74-290
- Dickman, S.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102
- Dielman, I. E., Cattell, R. B., & Datrik R. (1972). Childrearing antecedents of early school child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3), PP.431-435.
- Eysenck, S. B, & Eysenck, H. J. (1978). Impulsiveness and Venturesomeness: their position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s*, 43, 1247-1253.
- 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Long-term criminal outcomes of hyperactivity-attention deficit and conduct problems. In L. Robins & Rutter (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p. 62-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bing, D., Ahadi, S., & Patton, J. (1987).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impulsivity : Components across the behavioral and self-report domai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2, 357-379
- Harriman, P.(1947).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Kagan, J., Moss, H.A. (1962).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styles of conceptualization monograph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N.Y.:Wiley, 340-341.
- Kagan, J.(1966). Reflection- 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Kelley, J.A., & Worell,J. C.(1977). New formulation of sex role and androgyny. *A Critical Psychology*, 45(6), 1101-1115.
- Lamb, M. E. (1975). Father;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
- _____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2-181.
- _____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2nd ed). New York: Wiley.
- Luengo, M. A., Carrillo-de-la-Pena, M.T., Otero, J.M, & Romero, E.(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impulsivity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42-548.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ussen, P. H.(1963).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 Hall Inc.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infancy.In J.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579-641.
- Parke. R. D.(1981). Father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din, N., & Sagi, A.(1982). Childrearing father participation and child development outcomes. In M.E.Lamb, & A.Sagi(Eds.), Fatherhood and Family Policy. Hillsdale, NJ: Erlbaum.
- Roe, A & Siegrlman, M. A.(1963).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Vol. 34, 355-369
- Royse, D. & Wiehe, V.R. (1988). Impulsivity in felons and unw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62, 335-336
- Satterfield, J. M. (1987). Childhood diagnostic and neurophysiological predictors of teenage arrest rates:An eight-year prospective study. In S. A. Mednick, T. E. Moffitt, & S. A. Stack(Eds.), The Causes of crime : New biological approaches(pp.146-16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Val. 59, 226-235.
- Sears, R. R., Rau, L., & Alpent, R.(1965). Identification and Child Rearing Stanford :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Appleton century.
- _____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aub, M. (1974). Self-concept of parents and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 142-145.
-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 Simon & Schuster.
- Yando, R.M.(1970). The effect of task complexity
reflection-impulsivity, *Cognitive Psychology*,1,192-20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attitude for bringing up and the children's Impulsivity*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ung-Kyu

This study is designed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perceived fostering attitudes of fathers and the impulsive nature of their children.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came up with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backgrounds of fathers?
2. Is there any difference in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features of children?
3.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impulsive nature of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features of children?
4. Is there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ostering attitudes of fathers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impulsive features of children?

The researcher worked with a total of 257 fifth and sixth graders attending D elementary school, Jeju, making an impulse-test pap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

for children with the help of an impulse-test paper for the young developed by Yi Mi-kyeong and manufacturing 'a parenting-test paper' with the aid of 'a parenting-test paper' developed by Oh Seung-yeon. The researcher depended on SPSS program as well a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The researcher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urvey on the parenting attitudes of fathers perceived by children in accordance with fathers' academic background reveals that love & self-regulation are more apparent in the fathers who graduated from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an the fathers who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higher academic backgrounds the fathers have, the more emphasis they put on love and self-regulation.

Second, the survey on a difference in the fostering attitudes of fathers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indicates that regulation and pressure-based attitudes are more apparent in those aged more than their 40s than those aged less than their 30s. The older the fathers are, the more pressure they put on their children to have them achieve.

Third, the survey on a difference in the fostering attitudes of fath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der of their children shows that male children are exposed to more refusal and indifference, regulation and achievement-pressure than their counterparts. Fathers turns out to have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ir sons than toward their daughter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order of their birth.

Fourth, the survey on a difference in the impulse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order of birth shows that behavioral impulse is more apparent in the subjects who are the second oldest daughters or sons and that it is more apparent in the subjects who are the oldest daughters or sons than the youngest daughters or son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ulse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order of birth. Accordingly, fathers should make every effort not to ignore their children who are not the youngest and oldest daughters or sons.

Fifth,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s of fathers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behavioral impulses of childre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gulatory attitudes, achievement-pressure attitudes, inconsistent attitudes and behavioral impulses.

All in all, love and self-regulatory parenting attitudes are better in inspiring children with self-regulatory capacity than excessive regulatory and achievement-pressing attitudes or too much affection attitudes and too much protective attitudes.

Therefore, fathers should refrain from too much regulation or affection, but form attitudes based on love & self-regulatory attitudes designed to respect their children's views and to cultivate and promote mature behavior.

부 록

<부록1> 아버지의 양육태도 검사지



<부록2> 아동용 충동성 검사지

질 문 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성격과 가정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행동을 기억하여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진공이온경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잠깐!** 하나 하나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에 꼭 V표 해주세요

구 분	내 용
1. 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
2. 학년	① 4학년 () ② 5학년 () ③ 6학년 ()
3. 형제간 수	① 2명이하 () ② 3명이상
4. 나의 출생	① 첫째 () ② 둘째이상 ③ 막내 ()
5. 아버지의 학력	① 고졸이하 () ② 대졸이상
6. 아버지의 나이	① 30-39 () ② 40-49 () ③ 50이상 ()
7. 어머니의 취업	① 직장에 다니신다.() ② 전업주부이다.()

<부록1>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질문지

이 검사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 주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답변해 주는 내용은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고, 학교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아래의 방법처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하는 방법>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아버지는 나와 같이 외출하거나 즐겁게 놀아준다. (‘자주 그런편이다’라고 생각되면☞)		√		

아버지는.....?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아버지는 나와 같이 외출하거나 즐겁게 놀아준다				
2. 아버지는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쁜데”라고 하며, 말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3.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이나 운동도 다친다고 못하게 하신다.				
5. 아버지는 내가 친구와 잠깐 놀아도 공부하라고 야단친다.				
6. 아버지는 기분이 나쁠 때는 같은 일을 가지고도 더 많이 꾸중을 하신다.				
7. 아버지는 나의 바람직한 행동에 칭찬을 해주신다.				
8. 아버지는 나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말씀하신다.				
9. 아버지는 나의 일을 나와 의논하지 않고 부모님 마음대로 한다.				
10. 아버지는 내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안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11. 아버지는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꾸중한다.				
12. 아버지는 끈덕지게 조르면 나중에는 내가 하자는대로 한다.				
13. 아버지는 나의 가까운 친구를 거의 알고 있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4. 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참지 못한다.				
15.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야단을 맞는다.				
16. 아버지는 나를 꾸짖지 않고 칭찬만 한다.				
17.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억지로라도 시킨다.				
18. 아버지는 나를 많이 도와주면서도 어떤 때는 혼자 못하느냐고 꾸중하신다.				
19. 아버지는 내가 질문하면 좋아하며 친절히 응해 주신다.				
20.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은 안돼”, 저것은 못써“라는 말을 하신다.				
21.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22. 아버지는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해준다.				
23. 아버지는 학교의 일에 대해 이것저것 자꾸 묻는다.				
24. 아버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나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25.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재미있게 들어주신다.				
26. 집에서 꾸중들을 때 매를 맞는다.				
27.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물건(장난감 등)을 사면 크게 야단을 치신다.				
28. 아버지는 나를 나이보다 어리게 생각하고 마냥 귀여워해 준다.				
29. 아버지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30. 아버지는 똑같은 일인데 어떤 때는 꾸중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1. 아버지는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				
32. 아버지는 내가 아무 때나 식사를 해도 내버려둔다.				
33. 아버지는 내가 입기 싫어하는 옷도 입기를 바란다.				
34. 아버지는 내가 원한다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사준다.				
35. 아버지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한다.				
36. 아버지는 심하게 꾸중을 하고는 사과하거나 기분을 맞추어 준다.				
37. 아버지는 내가 할 일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38. 아버지는 내가 용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말 않는다.				
39. 아버지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거나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40. 아버지는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준다.				
41. 나는 아버지로부터 늘 공부하라는 말을 듣는다.				
42. 아버지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약속을 안 지킨다.				
43.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순순히 허락해 주신다.				
44.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전혀 모르는 편이다.				
45. 아버지는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치신다.				
46. 아버지는 집에서 귀찮도록 나의 일을 챙겨주신다.				
47. 아버지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48. 아버지는 잘한 일에는 칭찬해 주지 않고 못한 일은 꾸중을 하신다.				
49. 아버지는 옷이나 학용품 같은 것을 사줄 때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				
50. 아버지는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51. 아버지는 나의 생활에 대해 꼬박꼬박 규칙을 정해 놓고 계신다.				
52. 아버지는 숙제나 공부를 할 때 나를 도와준다.				
53. 아버지는 나에게 “공부를 하면 무엇을 준다”라고 한다.				
54. 아버지는 형제간에 싸움을 해서 야단칠 때 차별한다.				
55. 아버지는 내가 특기(태권도, 피아노등)를 배우려고 할 때 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한다.				
56. 아버지는 나 혼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57. 아버지는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 신경 쓰고 간섭하신다.				
58. 아버지는 내가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날까봐 늘 걱정을 한다.				
59. 아버지는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주시려고 한다.				
60. 아버지는 나를 귀여워해 주면서도 때때로 심하게 야단을 치신다.				

☞ 뒷면부터는 어린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부록 2>

2. 아동용 인성 검사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란에 솔직하게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다	아니다
1.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별생각 없이 말로 나온다.		
2. 문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푸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3. 침착해서 거의 흥분하지 않는다.		
4.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을 말로 금방 표현할 수 있다.		
5.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침착해 진다.		
6. 지킬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7. 사고 싶은 물건은 꼭 사야 시원하다.		
8.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		
9. 돈이 얼마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다.		
10.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		
11. 이것저것 따져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2. 괜히 열받거나 뭔가 하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다.		
13.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14. 때때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버린다.		
15. 가끔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6. 갑자기 내 마음이 싱숭생숭 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가 있다.		
17. 생각없이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18. 흥분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다.		
19. 미리 잘 살펴지 않아서 계획이 엉망이 될 때가 있다.		
20.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지 않으면 못한다.		
21.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고 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22. 갑자기 웃음이나 울음 이 터져서 참지 못할 때가 있다.		
23. 학용품을 살 땐 그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좋은지 나쁜지 비교해 보고 사는 편이다.		
24. 머리 속으로 아주 나쁜 생각 을 할 때가 있다.		
25. 가끔 집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26.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왜 그랬는지 모를 때가 있다.		
27. 마음대로 잘 안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28. 차근 차근 따져보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29. 미칠 듯이 날떨 때가 간혹 있다.		
30.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31. 가끔 나도 모르게 고향 을 지를 때가 있다.		
32.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화풀이 를 한다.		
33. 가끔 몸싸움 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34. 하지 말라 는 일은 더하고 싶다.		
35. 너무 화가 나서 책상을 ‘짱’ 칠 때가 있다.		
36.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금방 화 가 난다.		
37. ‘성질이 급하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38. 새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싫증나서 끝까지 하기가 어렵다		
39. 어떤 때는 욕을 막하고 싶을 때가 있다.		
40.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날 때가 있다.		
41. 열받았을 때는 참기가 힘들다.		
42. 화가 나면 보이는 대로 마구 내던진다.		

☞ 수고했어요